

자치단체 연석회의(가칭) 1차 모임

발신 : 총여학생회
수신 : 자치단체 여러분!!
일시 : '98 메이데이

womb. 13th, 총여
beyond. 생공, 이과대, 공대
이과대, 공대, 방대

보고사항

1. 각 모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논의사항

1. 자치단체의 '예산자치체(가칭)'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고 되도록 확정지읍시다. (별첨 문서)
2. '따로 또 같이' - 총여학생회/자치단체 한마당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봅시다.
- 연석회의(가칭)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예산 등)을 자문화했으면 합니다. 학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소모임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연석모임이 대학사회의 자치질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을 널리 알려냅시다!

제안합니다!

1. 총여학생회에서 제안합니다!
- 미인대회 반대 문화제(가칭)를 위한 기획단을 꾸립시다. (별첨문서)
- 대동제 기간 여성팀을 만들어 줄다리기/줄넘기 대회에 참가합시다! (별첨문서)
2. 자치단체들의 제안 - 1. *sparkmg.*
2. *beyond* 자치기약.

공지사항

1. 5월 4일(월) 늦은 6시 IMF와 여성 정리해고에 대한 강연회
강연자 : 조순경 교수 (이대 여성학 교수)
장소 : 이화여대
- 대중 강연이라기보다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연입니다. IMF와 여성노동권의 문제를 여성주의적 시각에 접근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2. 5월 9일 (토) 늦은 1시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장소 : 평택사역.
-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은 모여서 갑시다. 구체적인 사항은 총여학생회나 게르니카로 문의하세요.

3. 5월 9-10일 (토-일) 일은 11시

성폭력 해결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상담 교육

장소 : 이화여대

성폭력 상담소에서 대학생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가해자/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 기초적인 법률 의학을 교육합니다.

아주 유익한 교육일 듯합니다.

참가할 분은 5월 2일까지 총여학생회로 알려주세요.

참가비 : 1인당 5천원

4. 5월 14일 (목) 늦은 5시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별첨문서)

장소 : 이화여대 중강당

학내 성폭력 근절과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수신 : 성폭력 자치규약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각 급 학생회

발신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0. 들어가며

신입생 환영회, 뒷풀이, MT에서 뿐아니라 동아리방, 과방, 심지어는 교실에서까지. 이 모든 장소가 성폭력 사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96년도부터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학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 대학의 여성운동조직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18개 대학이 결합되어 있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에 의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제정운동(이하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1대 총여학생회 선거와 35대 총학생회선거 당시 대부분의 선본에서 성폭력자치규약제정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나 여성연대회의에서 주관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에 대해 설문에 응했던 남녀 95%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미루어보아도 학내 전반적으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실물적인 흐름이나 성과는 아직 찾아보기가 힘들다. 학교당국과의 협상을 논의로 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은 많이 남아 있다. 단순히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또한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정조'에 대한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회적 편견과 단절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칙과는 다른 자치규약의 제정으로 자치권의 실재적인 의미를 실천하는 일이라 한다면,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학문화와 학생운동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며 그만큼 다양한 대중들의 실천을 요구하는 운동일 것이다.

1.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이며,

대중운동인 동시에 자치운동이다.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성적 자율권 확보를 전제로 하는 운동이다. 여성운동은 성의 차이가 차별과 억압의 근거가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마디로 여성운동은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여성의 몸과 성은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설정이 된다. 오랜 기간동안 여성이라는 몸이 언제나 남성의 소유물로, 여성의 인격과 유리된 성에화된 육체로만 읽혀지면서 배제되어 왔기에,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주인은 바로 여성자신이라는 관점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독자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기본이 된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는 남성 지배적인 구조와 문화를 극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남성 지배적인 권력구조에 문제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적자기결정권확보를 통해 여성권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중운동이다. 그동안의 대중운동이 대중에 의한 운동이 아닌 단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관료적, 수직적인 운동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대중과 괴리되어 버린 현실에서 근 몇 년동안 운동의 위기하는 말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여성운동의 쟁점 또한 대중화되지 못하고 직접적인 대학사회 내의 변혁을 촉발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그 속에서 중앙집권적 권력과 방식이 아닌 여성주의적 권력과 방식을 실험되고 실현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실험들 속에서 이 운동은 소수만의 운동이 아닌 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들을 열어가야 한다.

동시에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자치운동이다. 학생자치권 확보라는 테제는 96년도 이후 더욱더 광폭하게 다가오는 자치권 탄압과 대중적 실천없는 구호의 나열 속에서 현재 선언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자치규약제정은 자치권 확보의 실물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제정하고 선포하는 학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재정하는 자치규약의 실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 내의 자치규약 제정과 공동체 문화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운동이다.

2.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으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대중적인 공유 속에서 서로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규약의 의미인 것이다.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성폭력에 관련한 모든 언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 성적 자율권의 침해여부, 조사과정과 처벌, 예방과 재교육 등에 대한 것들이 여성의 입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지속적인 여성적 관점의 담론 형성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대학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한 규약인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제정 의미속에서 대학운영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기와 운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실물적인 장치구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서 실물화시켜내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 즉 전문가와의 연개, 학교당국과의 협상, 학내 자치기구들과의 연대활동 등을 통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3. 5월 14일 공청회로, 자치규약 운동의 깃발을 올리자!

지난 1년 동안 여성연대회의에서는 국내/외 대학 학칙을 기반으로 하여 가안을 만들었다. 이 가안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여성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대학의, 더 나아가 사회의 가부장적 폭력성을 해체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가안은 현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님에게 의뢰된 상황이며, 이 가안은 각 학교에서 각기 사정에 맞는 자치규약을 제정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4월 동안은 '성의식과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업을 약 10개 학교에서 진행했다.

학칙 가안과 설문지 결과를 가지고 여성연대회의에서는 5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 공청회는 전국적으로 대학내 성폭력 자치규약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본격적인 제정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 1998년 5월 14일 늦은 5시

장소 : 이화여대 (~~구체적 장소는 아직 미정~~)

프로그램 : 강연

사전행사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퍼포먼스

1부

개회사

98년 상반기 여성연대회의 활동 보고

「학내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부 본 공청회

발제 : ①학칙 제정의 필요성

②학칙 가안 발표

③앞으로의 학칙 제정운동의 방향

대동제 기획안(초안)

발신: 연세대학교 제35대 총학생회 문화국

수신: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병주
전담제2대제 7차
장터
(사형각음주)

일 5/10	월 11	화 12	수 13	목 14	금 15	토 16	비고
		98 무악대동제 ● 개막제 (민주광장) -길놀이 -단심줄꼬기 -PC그림그리기 -단대별 조형물만들기 -축하공연 (100미터 or 150미터) ● 영화제 (2편 정도 / 작품 미정) ● 마당극 (남녀상, 일지사) [경영원광당]	● ROCK FESTIVAL (1부/2부) ● YBS행사 (숲속의 향연) ● 백양로를 걷는 PC만들기	● 응원제 (야구장) ● 민속놀이 한마당 (민주광장)	● 전달제 노래제 (삼거리) ● 폐막제 ● 98대학문화 축제		
		자율과 공존을 위한 한마당					
		● 학부제 한마당	● 장애학우 한마당	● 복학생 / 편입생한마당			

1.개막제

- 1)<단심줄 꼬기>는 길놀이와 함께 이어지는 행사로 진행하며 사전 연습이 필요.
- 2)대형PC천에 그림 그리기는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며 완성 후 대동제 기간 동안 민주광장 양 옆에 걸게 된다.
- 3)축하공연은 대동제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흥겨운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노래공연으로 만든다.
- 4)단체 줄넘기/줄다리기 대회는 사전에 참가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다.
 -->20미터 정도의 길이로 하되 재료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장 '이색적이고 예쁜' 줄을 만들 것, 그리고 그 줄로 개막제 때에는 단체 줄넘기가 진행된다. 줄넘기도 가장 '이색적이고 신나게' 하는 팀에 가산점이 있게 된다. 응원과 음악사용가능
 -->참가팀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각각 다섯 팀을 선정한다('예쁜 줄'로 가장 신나고 재미있게 줄넘기를 한 팀으로)그 줄은 페타이어에 묶어 양 편이 줄다리를 하게 된다.
- 5)단대별 조형물 만들기

-->주제를 각 단대별로 정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추어 조형물을 만든다.
(기본재료는 준비되어 있으며 그 외의 재료는 각자 준비해와도 좋다)

4),5)번은 상품이 있을 예정

2.자율과 공존을 위한 한마당

①학부제 한마당-각 단대별로 학부제를 고민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학부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학부제의 장단점 뿐만이 아닌 학부제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모의 수강신청>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②장애학우 한마당-동아리 게르니카와 학회 <복지와 사회 연구회>가 함께 만드는 <장애체험>과 거리 전시회 등이 진행될 예정

③복학생 편입생 한마당-현재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복학생들과 편입생들의 자리. 특히 고학번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업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본다.

3.진달래 노래제-학내의 문화적 아마추어리즘을 대동제라는 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험하는 자리

1)참가자격-각 과,단대/동아리/학회 관계없음

2)참가기준-창작곡이나 편곡된 기존곡

3)진행일정-신청은 5월 1일까지 하며 5월 6일 (수)필요한 기자재 확인하는 회의
5월 7일까지 참가단체명,악보, 참가인원의 명단을 제출할 것

4)시상-1,2,3등과 인기상으로 상품 미정